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광양시에 '아동보호 전문센터' 들어선다

10억 원 투입 12월 준공예정...연면적 451.52㎡

광양시에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권리를 증진시켜줄 '아동보호 전문센터'가 들어선다.

광양시는 포스코1%나눔재단과 함께 아동포스코스틸빌리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아동보호 전문센터'가 지난 8월 착공했다.

아동보호 전문센터에는 연면적 451.52㎡ 2층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12월 준공 목표로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부지를 제공했으며, 아동보호 전문센터가 완공

되면 포스코 1%나눔재단에서 광양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이번에 들어설 아동보호 전문센터 1층에는 아동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토록 하는 사무실과 교육실이 들어서며, 2층에는 남/여 아동센터로 운영된다.

특히 사용용도에 맞게 아동복지와 교육을 위한 공동체 클러스터 형상과 균일하게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최적의 편안함을 제공하도록 했다.

시는 아동보호 전문센터가 완공되면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불

이, 미술, 음악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아동보호 전문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그동안 지역 내에서 발생한 피해아동이 입소 시설이 없어 인근 지역의 시설에 입소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양군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아동보호 전문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전남에서 최초로 인준 받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시설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순천시, 서민생활 안정 추석 명절 종합대책 추진

물가·교통·보건 등 생활불편 해소, 귀성객 맞이 분주



순천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연휴기간 동안 일상에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시는 추석 연휴기간인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8개 분야에 188명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물

가안정, 교통안정, 다중이용시설 안전 등 분야별 점검과 함께 서민생활과 밀접한 성수품 가격관리 등 민생안정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가을 정원 갈대축제'를 개최한다.

연휴 기간중 토·일요일·공휴일

11시, 14시, 16시에는 '레트로&디스코 퍼레이드'가 펼쳐지며, 아간에는 잔디마당에서 류기널 앙상블 공연이 개최된다.

조선 600년의 전통과 문화가 오롯이 살아있는 사적 제302호 낙안읍성에서 추석 연휴기간 동안 방문객들을 위해 추석맞이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낙안읍성을 방문한 어른부터 아이까지 소중한 추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거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관광객을 위해 고립된 묘지에 가족과 후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성묘할 수 있도록 '추석' 당일인 24일 하루 동안 성묘객 특별수송을 추진한다.

순천시는 육군 제1179부대와 수자원공사로부터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아 주요관광 고립묘지 성묘객을 위해 주요관광 대광리 선착장(산 175-3번지)에서 수송을 진행하며, 상사 조절지점은 승주읍 유령리 선착장(산 187-2번지)에서 성묘객 수송이 이뤄질 계획이다.

순천=김종영 기자

순천만국가정원 근무자 국가기술자격 대거 취득

순천시는 최근에 시행한 '화웨이정기평가' 시험에 국가정원 근무자 8명이 응시하여 7명이 최종 합격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지난 7월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들을 대상으로 약 45여일 동안 국가정원 총괄매니저(임수희)를 중심으로 자격증 실기시험 기술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합격자들은 교육기간중 정원에서 근무하는 개개인의 전문성 향상과 국가정원 1호의 품격에 걸맞은 정원운영을 위해 매일 퇴근 후 저녁 10시까지 이어지는 수업에도 불구하고 100% 출석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순천만정원은 근무자 개개인의 전문성 확보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원유지관리가 가능해졌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원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국가정원 근무자 중 자격증 취득인원은 금번 7명 포함해 총 33명(정원관리사 28명, 일반직 5명)으로 전체 인원대비 30% 정도의 취득률을 보이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힐링체험여행 운영...내달까지

광양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힐링 체험과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1박 2일 오빠매'왔었다!'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광양원 매실 6차산업 지역다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의 일환으로 6차산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 일정은 오전 7시 서울에서 버스로 출발해 광양에서 1박 2일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마치고, 마지막 날인 2일차 오후 7시 서울에 도착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1박 2일 동안 별을 사랑한 운동주사인의 발자취가 남겨진 진월면 망덕포구 정병육가옥과 산나무, 편백, 테다 소나무 등 아름다운 나무가 계곡과 함께 펼쳐진 백운산자연휴양림을 방문한다.

또 남해바다와 어우러지며 광양제철소와 광양항이 보이는 구룡산 전망대와 형형색색 아름다운 LED

조명의 불빛으로 아름다움을 더하는 노랑이골자연리조트에서 멋진 야경을 감상하게 된다.

아울러 농촌체험마을인 도선군사마을과 메이리마을, 형제의병장마을을 방문해 매실수 족욕체험, 산책로 트레킹 등을 하며 힐링의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여행의 끝에는 광양원형 로컬푸드에서 광양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신신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차 여행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여행비용은 7~9만 원대로 최소 25일 이상이면 출발이 가능하며, 상품의 세부일정 확인이나 예약은 (주)로망스투어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광양=김승호 기자

보성군, '제12회 동로성축제' 개최

오는 22일 동로현감 행차 재현 등 볼거리 풍성

보성군 조성면 '제12회 동로성축제'가 조성중학교 운동장에서 오는 22일 열린다. 찬란한 문화유산을 꽃피웠던 동로·조양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축제다.

올해로 12회째인 동로성축제는 백제시대에 조성면 분자군의 영현 동로현이라 불렀다는 오랜 역사 기록에 따라 개최하고 있다. 현재 동로성축제는 마을 주민들이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옛 문화를 재현하며 즐기고 있다. 체육 경기와 노래자랑 등을 통해서 마을 주민 간 결속을 다지는 한마음 대축제다.

축제는 주월산 정상에서 드리는 자신제를 시작으로 동로현감 행차 재현, 시기행진을 비롯해 동로 현악단의 난타 공연과 중국 하남성 기예단 공연, 신미숙 명창 국악공연, 조대기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진다.

조성면은 선사시대부터 삶의 흔적이 도처에 있는 옛 고도로 유구한 역사의 흔적과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곳이다. 전라도 4진(목포, 조양, 우구, 흥양)중 1진으로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조성은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임시 통제영을 설치하고 군량미를 확보하는 등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지역이다.

역사가 깊은 이곳 조성면은 간척지의 기름진 쌀과 전국 최대의 참다래 생산지이자 방울도마토 시배지로 예부터 인심이 넉넉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장흥군,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 우수지자체 선정

매월 주민 자율 참여형 바다 청소의 날 운영



장흥군이 지난 14일 충남 태안군에서 개최된 '제18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에서 해양쓰레기 관리역량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

됐다. 해양쓰레기 관리역량 평가는 지역별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깨끗한 바다 지키기 참여 유도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장흥군은 2017년 전국 최초로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특구'로 지정돼 해양환경 개선에 꾸준히 노력해 왔다.

청정해양환경 이미지를 활용하

무산김, 매생이, 키조개 등의 친환경 수산물에 내놓으며 어가 소득증대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위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어촌계 중심의 '바다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해양환경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주민과 힘을 모아 청정해역 특구주민을 더욱 깨끗하게 보호하고, 이러한 노력이 다시 주민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행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요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면담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